

‘K팝’ 그라미 도전은 계속된다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내년도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말고도 아이브 등 4세대 K팝 그룹도 대거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요계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라미에 많은 가수가 출품한 것 자체가 K팝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뉴진스

아이브

10일 후보 발표

12월 최종 투표

2024년 2월 4일

그라미어워즈 개최



‘첫 월드투어’ 기자회견때 당시 아이브

◇ BTS, 7인 7색 솔로 만개...전원 다분출품

2일 가요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열리는 제66회 그라미 어워즈에는 3회 연속 후보로 지명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많은 K팝 스타가 출품했다.

우선 방탄소년단은 최근 1년간 활발한 솔로 활동을 펼친 만큼 일곱 멤버 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형 진은 솔로 싱글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에 도전했고, 제이홉은 제이홉과 협업한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베스트 뮤직비디오에 노크했다.

리더 RM은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와 타이틀곡 ‘들꽃놀이’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베스트 뮤직비디오, 슈가는 솔로 앨범 ‘D-데이’(D

-Day)와 타이틀곡 ‘해금’으로 베스트 랩 앨범·베스트 랩 퍼포먼스·베스트 뮤직비디오에 출품했다.

뷔는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와 타이틀곡 ‘슬로 댄싱’(Slow Dancing)으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뮤직비디오를 노린다.

특히 올해 관심을 끄는 멤버는 솔로 앨범 ‘페이스’(Face)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와 솔로 데뷔곡 ‘세븐’(Seve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을 밟은 지민과 정국이다.

지민과 정국은 나란히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본상)인 레코드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에 도전한다.

지민은 이 밖에도 베스트 팝 보컬 앨범·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베스트 뮤직비디오에, 정국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베스트 뮤직비디오에 각각 출품했다.

◇ 블랙핑크·뉴진스·아이브...바통 잇는 후보들

방탄소년단 말고도 그라미의 문턱을 넘으려는 후보 K팝 스타들이 많다.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으로 후보로 올라 K팝 팬에게도 익숙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K팝 스타가 몰렸다.

‘큐피드’(Cupid) 열풍을 일으킨 퍼피티 퍼피티를 비롯해 에스파, NCT 드림, 스트

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트와이스, 블랙핑크, 뉴진스, 있지, 아이브가 출품했다. 블랙핑크는 게임 OST ‘더 걸스’(The Girls)를 내밀었고, 뉴진스는 존 바티스트와 협업한 ‘비 후유 아’(Be Who You Are)가 출품작이다.

◇ 오는 10일 부문별 후보 발표

그라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1974년 시작)나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1990년 시작)보다 역사가 훨씬 길다.

그라미 어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차트 성적이나 음반 판매량 등 상업적 성과보다는 음악성과 작품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가린다는 점이다.

그라미 어워즈는 이번부터 제너럴 필즈를 앨범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신인상에 더해 ‘프로듀서 오브 더 이어’(논-클래식)와 ‘솔리더 오브 더 이어’(논-클래식)로도 확대했다.

그라미 어워즈 1차 회회 투표는 지난달 11~20일(이하 현지시간) 이뤄졌다. 이를 통과한 부문별 최종 후보는 오는 10일 공개된다. 이후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제66회 그라미 어워즈는 내년 2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청룡 여신’ 김혜수

올해 영화상 끝으로 MC 물러난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올해를 끝으로 청룡영화상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소속사 후드엔터테인먼트인먼트는 김혜수가 오는 24일 열리는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김혜수가 청룡영화상 MC를 맡는 것은 올해가 30번째다.

그는 1993년 열린 제14회 시상식을 시작

으로 제19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청룡영화상의 MC 자리를 지켜왔다.

남자 MC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김혜수는 30여년을 청룡영화상과 함께해 ‘청룡의 여신’으로 불린다.

김혜수가 시상식에서 동료 배우에게 건네는 축하 인사나 매끄러운 진행 멘트, 그가 입는 드레스 등도 매해 화제가 될 만큼 청룡영화상의 상징으로 통했다. /연합뉴스

삼례나라슈퍼 실화극 ‘소년들’ 2위로 출발

정지영 감독 새영화...애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1위

정지영 감독의 새 영화 ‘소년들’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로 진입했다.

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년들’은 개봉일인 전날 3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4.3%)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이 영화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누명을 쓴 소년들을 구하려는 형사 준철(설경구 분)의 분투를 그렸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4만9천여 명(32.2%)을 동원해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누적 관객 수는 111만여 명이 됐다.

이 작품은 지난달 25일 개봉 이후 관객의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렸지만, 한 차례도 정상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야자키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이 영화는 소년 ‘마히토’가 신비한 왜가리를 만나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전날 개봉한 미국 공포 영화 ‘톡 투 미’는 1만5천여 명(9.2%)을 불러들여 3위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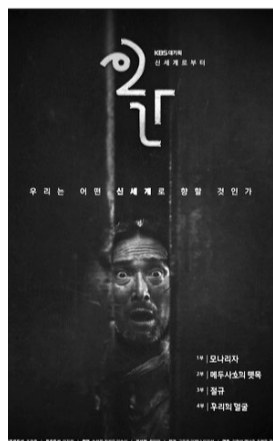
유튜버 출신 쌍둥이 형제 감독 다니·마이클 필리푸가 연출한 ‘톡 투 미’는 죽은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손 모양의 조각으로 ‘빙의 챌린지’를 하는 10대들의 이야기다.

미국 독립영화사 A24가 배급한 영화 가운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9천51만달러(약 1천221억원)의 세계 매출액을 기록했다.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30일’은 새로 개봉한 작품들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1만3천여 명(8.4%)을 더해 누적 관객 수는 189만여 명이 됐다.

신혜선이 주연한 액션 영화 ‘용감한 시민’ 역시 8천여 명(5.0%)을 모으는 데 그쳐 5위로 하락했다. 누적 관객 수는 21만여 명이다. /연합뉴스

KBS 4부작 인문 다큐 ‘인간:신세계로부터’ 9일 첫 방영



KBS는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4부작 대기획 인문 다큐멘터리 ‘인간: 신세계로부터’를 9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 1TV에서 방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간:신세계로부터’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인간성 회복을 꿈꾸며 발전한 서양 미술이 흑사병,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 인류사의 거대한 사건들과 맞물려 어떻게 세

상을 바꿨는지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에 드라마를 접목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재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예술품을 수집하는 노인 ‘서준’(안석환 분)과 인공지능(AI) 소녀 ‘한나’의 로드 무비라는 세계관을 설정하고, 이들이 인류가 남긴 명화들을 탐구하는 과정

을 다룬다.

제작진은 11개월 동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과 아프리카 등을 취재해 미술 거장들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았다. 서양미술사 최고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틴 겐프 교수를 비롯한 미술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리다육)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솔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 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